

사람이 어울려 사는 세상에 이런 저런 분쟁이
어찌 없겠는가. 그래서 법이 있고 우리는 법이
만인에게 평등 공정하고 엄격한 것을 바란다. 그러나 '공정'과 '평등'에 대한 해석은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문제는 같은 사안에 대한 판결이 재판관이 바
뀌면 달라지는데 있다. '법리적 해석의 차이'가
아니고 재판관의 이념이나 철학에 의해 다수가
납득할 수 없는 쪽으로 뒤집힌다면 법에 대한 불
신을 초래하지 않겠는가.

안마사로 생계를 꾸려온 시각장애인인 아파
트에서 투신자살 했다. 어떤 이는 온몸에 시너를
끼얹으며 분신을 시도하고, 강물에 투신하고, 고
속도로에서, 광화문에서, 북부청사 앞에서 시
위가 있었다. 현재도 마포대교에서 시각장애인
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5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
마사가 될 수 있도록 한 헌법규정이 위헌이라고 판
결했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를 보호한 것이므로 공정한 판결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과연 공정한 판결일까? 헌법재판소
재판들이 7:1로 위헌 결정을 내렸으니 맞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 법은 불과 3년 전에 합헌 결정을 받



불자 세상보기

한 여선
시인

헌법과 안마 그리고 생존권

은 바 있다. 위헌 결정이 제대로 된 것이라면 그
때는 공정한 판결이 아니었다는 말이 된다. 위헌
판결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니 개운치 않다.

문제가 된 안마사업이 비장애인에겐 선택
가능한 수 만 가지 직업중의 하나일 뿐이지만
시각장애인에겐 유일한 생업이다. 한 생업이
다. 그 최소의 생존수단을 두고 비장애인과 경
쟁하도록 한 것인데, 같은 조건에서 행해지는 시
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쟁은 그 자체로 공평
하지 않다. 2003년 합헌 결정을 내렸던 재판관

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무시했을까? 아닐 것이
다. 달리 선택할 직업이 없는 시각장애인들의 생
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름다운 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

안마를 생업으로 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위헌
판결 이전부터 생존에 위협을 느꼈다고 호소했
었다. 무허가 안마업소, 무자격 안마사가 합법적
안마업소보다 10배 이상 많아지면서 현실적으
로 경쟁력이 없는 시각장애인들은 고사(枯死)적
전이라며 불법영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촉구

했다. 이번의 위헌 결정으로 법적 울타리마저 잃
어버린 시각장애인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을 보
면서, 대안 마련도 없이 불복 위헌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독점적 안마사업권'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유
예기간을 두어 제도적 대안을 마련한 뒤였다면
시각장애인들이 투신자살을 하고 고속도로에서
시위를 벌이다 연행되는 불행한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대립되는
두 가치관의 절충이 아니라 두 가치관 모두를 만
족시키는 지혜다. 사회적 약자도 법 안에서 평등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들의 생계와 관련
된 사안이라면 법을 초월하는 사회적 미덕을 이
끌어 내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시각장애인에게 특혜를 주는 나라는 우리나
라만 아니다. 자동판매기 운영권의 일부를 시
각장애인에게 특별적으로 부여하는 캐나다, 연
방정부의 건물이나 소유지에 속한 자동판매기
카메라의 일부를 시각장애인에게 주는 미국, 복권판매
권을 주는 스페인 등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사
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제
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위헌 결정보다 우선
되어야 할 일이다.



불자의 눈

미래를 향한 불교의 전진에 작심호가 켜졌다. 통계청 조사 결
과에 따르면 특히 청소년 불자는 10년 사이에 16.5%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청소년 종교인구는 10년사이 49.0%
에서 50.6%로 1.6%가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미래에는 사찰 등은 단지 문화 유산
으로만 남고 불자들은 없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놀랄 일은 아니다. 인과법으로 보아 당연한 결과이다. 그동
안 불교계에서 이루어진 불사들이라는 것을 분석해 보라. 사
찰, 불상 등의 불사가 주종을 이루었고, 인재불사, 특히 미래
불자들을 키우는 불사는 상대적으로 정말 미미한 수준에 그
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선은 돈이 들어가기만 하고 당
장 회수가 안된다는 것 때문에 종단과 사찰 등에서 나뉘라라
방치한 세월이 길었던 업보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놀라고 당황하기보다는 이제라도 미래에 거둬 써야
할 부지런히 뿌리고 가꾸는 것 밖에 다른 길이 없다.

청소년포교에 총체적 힘

그 뒤늦음을 조금이라도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는 그만큼
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온 힘을 기울여야 근본부터 확실히 다
져나가는 청소년 포교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 단순히 불교가
좋으니가 배우라는 식이어서는 승산이 없다. 청소년층에 맞
는 불교문화를 창출하여 그들이 자연스럽게 불교를 호응하도
록 한다는 큰 계획 아래 범종단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청소
년 포교를 위한 지도자 양성과 적절한 교재, 프로그램의 개발
을 개발해야 한다. 청소년 포교가 단위 사찰에서부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것
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강력한 지도가 있어야만 한다.

가장 기본은 불자들에게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일일 것이며, 그렇게 일깨워진 의식들이 올바르게 표출되어
청소년 포교를 위한 힘으로 집약되도록 이끄는 일이다. 종단
적 차원에서 우선 합리적인 틀을 갖추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 나갈 바탕을 마련하고, 끊임없이 우리
가 지향해야 할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여 미래불교 활성화의
힘이 커나갈도록 고취시켜야 한다. 모든 불자의 힘과 지혜를
여기에 모아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성대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특별기고

대법원의 '도롱뇽 소송' 기각

좋다. 그래도 좋다. 참 좋은 일이다.
대법원에서 새만금에 이어 경부고속철도 천
성산구간에 대한 도롱뇽 소송을 기각했다.

기각사유는 기존의 판례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과 과학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
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이 점은 또한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마지막으로 추진했다는 법적 한계를 명백히
보여준 사례중의 하나라고 본다.

처음 경부고속철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
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국책사업은 어쩔 수 없다
는 절망감속에서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제 그것
은 대법원의 판결로 구체적 사실로 판명되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좁은 국토에 많은 사람이
살다보니 지금 눈에 보이는 좋은 것에만 탐닉하
거나, 너무 살기에만 바쁜 것 같다. 외형적으로
는 독재를 타파하고, 선진화를 부르짖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잘못된 시대의 개발관행을 맹목
적으로 추종하고 있다. 적어도 많은 부문에서 민
주화가 이루어졌으나, 환경부문에서는 환경독
재가 추진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사례가 예나
제나 똑 같이 반복되고 있는 무분별한 개발관행
과 관행적 추진이다. 특히 국토의 한중 정도만을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으로 지정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온통 개발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북한산이 그렇고, 천성산, 한라산, 설악산, 지
리산 등이 그렇다. 그런 면에서 지방자치제도는
지방환경의 파괴제도를 일 수도 있다. 온통 개발하
려는 사람만 있고, 보존하려는 사람은 드물다.
그것은 개발의 효과는 즉각 나타나고, 계량화
가 가능하나, 보존의 효과는 장기적이고, 계량화
가 어려운 실정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인

세상이니, 눈에 보이지 않는 면 나라의 일은 지
금 우리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보존해야 할 지역으로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
보존지역으로 지정해 놓고도, 그 지역을 보존하
는 것이 아니라, 개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상
식적으로도 납득할 만한 일이 아니다.

적어도 이 시대에 보존지역으로 지정해놓고
서 그 지역을 해제도 않고 개발한다는 것이 그러
하다. 최소한 개발하고자 한다면 보존지역을 해
제하고 개발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그 정



반편 이야기를 하고 있
는 것이 국책사업이다.
경부고속철도도 예
초부터 부산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어디나
가 경제적인 것이다. 부
산으로 가는 사람이 경
주로 돌아가는 것이 경
제적이고, 타당성이 있다
는 많은 분명한 논속인
이다. 그 점은 최근 개통된 대구-부산간 직선화
고속도로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차라리 처음부터
울산과 포항 등 동해권을 고려한 정치적 결정이
었다고 양해를 구하고 시작된 사업이라면 그래
도 좋다. 왜 경제적, 과학적 타당성을 들먹이며,
스스로의 개발을 합리화시키느냐는 문제이다.

러내는 판결이다. 올바른 세상을 위한 사회의 정
의는 차지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자연을 우
리 시대가 스스로 내린진 구체적인 사례이다.

그렇지만, 불교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
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수경스
님의 삼보일배와 지물스님의 여러 번의 단식은
분명히 이 시대 불교가 이 사회에 던져준 햇살이
었다. 불교가 가지고 있는 환경친화적 가르침과
생활양식을 직접 몸으로 구현한 실천활동이었
다. 그것만으로도 한국불교는 한국의 자연과 지
구의 평화를 위한 초석을 놓은 것이다.

문제는 반자연적 사회의 도도한 흐름속에서
자연의 정의와 평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앞으로
불교계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이다. 이번 사
건으로 그동안 단편된 패배의식에 젖어 또 다시
울트라대결기보다는 또 다른 시대적 과제로 인정
하고 나아가야 할 때이다.

지금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환경독재의 관행
을 타파하기 위하여 불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
을 되살리는 새로운 분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미 여러 면에서 불교계의 생
명존중과 자연정의에 관한 결과물들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고, 기본적인 토대도 갖추어져 있는
실정이다. 이제야말로 이러한 결실들을 잘 여
서 이 시대 자연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새로운
노력들을 체계적으로 시작할 때이다.

그런 면에서 천성산 소송에 대한 기각을 확인
한 날은 참 좋은 날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시대적으로 필요한 일들이 구체
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불교계의 참다운 노
력에 의하여 이후의 날들은 이 사회속에 사회정
의와 함께 자연의 정의도 뿌리내리고, 오늘 우리
가 사는 이날이 우리들만의 날은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과 전체 지구인들도 다함께 같이 누려야
할 참으로 좋은 날이기를 바란다.

이병인(부산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 교수,
현재 미 오레곤 주립대 교환교수)

국책사업 명분 앞 '환경독재' 여전

눈에 보이는 개발효과보다 보존효과가 중요

도의 자신감을 있어야 한다. 더욱 문제가 있음에
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개발을 추진하면서 이미
진행된 일이고, 그 경제적 손실이 아까워서 추진
해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억지이다.

경부고속철도나 새만금 북한산관통도로 문제
는 최소한 예초부터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다. 정
치적인 이해득실로 결정된 사안을 계속 책임지
기 싫어서 회피하는, 과거의 잘못된 현재의 잘못
으로 될까 두려워서 잘못된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중의 하나였다.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를 보면
서 처음에는 공주역 등을 두지 않는 것이 경제적
이라고 하더니 어느 순간 선거철을 맞아서는 공
주역 등을 설치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라는 상

분명히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구간은 사업결정부
터, 철차상의 과정보다 원초적인 하자자가 있는 사
업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그렇다. 문제는 애초에
잘못 낀 단추를 모두들 제대로 끼었다고, 그래도
관찰하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이다. 이 사람들
엔 사업의 결정과 추진만 있을 뿐, 과학적 타당
성은 없다. 단지 정치적 합리성만 있다. 소위 국
책사업이라는 대구모사업도 그런데 그 밖의 크
고 작은 사업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런 면에서 천성산에 대한 소송기각은 우리
시대 환경의식의 수준을 드러내는 판결이다. 사
회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마저도 자연에 대
한 정의는 스스로 포기한 이 시대의 법수준을 드

'연대' 민명 심민심

어디에 있어야 빛이 나는가!

최고 정신 지도자 고급 과정

참선공지도자

神 임상최면사

神 치유명상가

깨달음(도통)과 神通(신통) · 醫通(의통) · 신병(빙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 마음조정법 고급 과정모집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과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임상최면 :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빙의, 해리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禪空)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며 내공 외공을 소유한다.

● 神치유명상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現근 신선암 주지
現神 임상최면 협회장
現참 선공 협회장
現神 치유명상 협회장

◆ 참선공의식 사례

-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돌아가서 한의원, 병원, 기공, 국, 각종 기도를 하였으나 돌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 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 60세 중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미모를 이유로 7살부터 오른 쪽 다리가 통증을 심하여 20년 동안 걸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 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었다.
-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울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능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 50세 중진 스님은 영가가 빙의 되어 눈에 뻗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와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지도자고급과정

● 일제일 : 2006. 6. 23 (금요일)
14:00 - 18:00 (10회 과정)
(선착순 10명 제한)

전 수 비 200만원

입금계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 이영하

조상 영가 보는 비법	
조상 천도 해탈 비법	빙의 · 해리 치유 비법
자비손 치유 비법	전생 치유 비법
음성 내공 비법	내생 치유 비법
신선 도인 비법	칠차원 도인 비법

- ◆ 교육후 참선공 자격증 神임상최면 자격증 神치유명상가 수료증 발급.
- ◆ 지도자과정 전수 후 사회활동 하실 분 협회에서 적극 추천 · 후원 합니다.
- ◆ 불치병, 난치병, 신병 상담 환영. 주지스님이 직접 상담.

근 신선암 참선공협회. 神치유명상협회

● 전화 : 02)383-1319 / 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